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 순교

한국교회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냅니다. ‘순교(殉敎)’라는 말에서 ‘따라 죽을 순(殉)’은 죽을사변부 빼양상할 알(𣎵)과 열흘 순(旬)이 합쳐진 형성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어를 풀이하여 순교를 “교회를 위해, 그 가르침을 위해서 열흘도 못 기다리고 따라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월(聖月)’은 한 달을 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 둘을 합하면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열흘도 못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한 달을 보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교자 성월은 한국교회에서 지내는 특별한 성월 신심입니다. 순교자 성월은 본래 1925년 7월 5일 79위 순교복자가 탄생하면서, 이듬해에 복자들이 가장 많이 순교한 9월 26일을 “한국 치명 복자 79위 첨례”로 정하여 서서히 발전해 갔습니다. 1939년 기해박해 100주년을 지내면서 순교자 현양 사업을 통해 순교 신심을 강화하였고, 1940년부터 매달 첫 주일을 ‘복자 공경 주일’로 지냈습니다. ‘복자 성월’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1941년 ‘경향잡지’에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9월을 복자 성월로 지내면서 한 달 동안 한국 순교자들을 특별히 공경하였습니다. 1984년 103위 복자가 모두 성인이 되면서 순교자 성월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기념 날짜도 9월 20일로 옮겨서 오늘날처럼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이라는 말을 쓴 지는 겨우 36년밖에 안되지만, 실제로는 95년이 넘게 우리는 한국 순교자들, 복자와 성인들을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순교자에 대한 의식 조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박해의 상황이 찾아오면 순교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그래도 한국 교회사와 순교자에 대한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한 사제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할 것 같은데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역사를 발굴하고 공부하면서 눈시울이 적셔질 만큼 감동하면서도 정작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면,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는 유다의 말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해마다 순교자 성월에는 성지순례도 다니고, 특강을 들을 기회도 생깁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아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사 관련 서적을 찾아 하나씩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눈으로 읽고, 손으로 필사해가면서, 입으로 전하고, 발로 찾아가며 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위주치명爲主致命)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해마다 듣는 대축일 독서와 복음이지만, 올해에야말로 로마서의 한 대목이 더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3-24)**

한국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이 나비로 형상화되어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주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저희가 길에서 벗어날지라도 다시 주님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문숙 요셉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